



살림살이 팍팍하다고 마음조차 가난할까



<19> 무안-박종석

어~얼 씨구씨구 들어간다~
저~얼 씨구씨구 들어간다~
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
왔네.

우리들의 귀에 너무 많이 익어서 대한민국
보통사람이라면 품바타령을 모르는 사
람은 없을 것이다.
품바는 각설이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
세상의 풍자극이다. 이는 좋고 배고픈 걸
인들이지만 절망한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
으로 바라보면서 빼놓아진 세상에 대한 질
책이 담겨져 있다.

과거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부
터 현재까지 피지배 계급의 심정을 담기에
충분한 타령으로 품바가 처음 기록된 문

헌은 고창출신 신재효(申在孝, 1812~
1884)의 한국 판소리 전집에 수록돼 '입장
고'라 불렀고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식민지
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. 특히
80년대 살벌한 군사정권 이후 사회적 과도
기를 겪으면서 당시에 정치 풍자극으로 자
리 잡아 서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다.

일인극 '품바'는 일제식민지시대부터 자
유당 말기까지 살다간 각설이때 천장근 대
장의 일대기를, 전남 무안군 일로 출신인
시인이자 극작가 겸 연출가인 김시라 선생
이 발굴해서 1981년 12월 무안 일로읍 공
회관에서 초연무대를 올리고 이후 5000회
가 넘는 공연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.

오~ 자네 능가!
이 무정헌 사람아
그레!
淸風에 날려 왔나
玄鶴을 타고 왔나
자네
뽕이나 갈게
난
慈雨茶 끓임새

님의 시가 저절로 떠오르는 고인(故人)
은 떠나고 없지만 그의 향토 창작극은 수
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다.

을 5월 초 수십 년의 기억을 더듬어 무안
군 일로를 탐방했다. 의신리 밤나무골 천
사촌(결인촌) 터와 과거 그곳에서 함께 살
았던 생존한 분도 수소문해 만났지만 손사
래를 치시기에 과거의 아픔을 듣지 못했
다. 성자(聖者)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
못하듯... 고 김시라 선생 생가터도 오래전
타인에게 양도되고 공회당 역시 마을회관
으로 새 단장 돼 있었다. 김시라 선생의 주
도로 1980년 당시 지역문화운동인 인의예
술회(仁義藝術會)가 결성되고 1981년 광
주에서 자취하던 김시라 선생을 '형'이라
부르며 자주 만났다. 그의 여동생 김향신
님은 연전미술원에서 그림 공부하며 동향

(同鄉)의 후배였던 박문중 화백의 증심사
아래 무량(茂良)마을 자취방 바닥에 엮드
려 함께 품바 희곡 원고를 검토하며 마지
막 탈고했던 기억이 아련하다. 김시라 선
배와의 인연은 박문중 화백과 김관철 친
구의 소개로 인연이 됐는데 긴 머리에 해
박한 고문(古文), 논리적이면서 부드러운
언변,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존경의 대상
이었다. 추진력이 뛰어난 김 선배님은 그
해 말, 무안 일로 허름한 공회당에서 인의
예술제 행사로 공연이 시연(試演)되고 서
화전도 병행되어 필자나 박문중 화백도 작
품을 출품했고 당시, 1대 품바 정규수 친
구가 열연을 펼치면서 환호했다. 이후

1982년 말, 동명동 금호문화재단에서 공
연할 때도 일로 청년들의 적극적 동참과
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다듬어진 각설이타
령은 세파를 조롱하고도 남을 만큼 성대
한 공연을 마쳤다. 이후 김선배는 적박한
중앙으로 상경해 전국적 관심을 갖기까지
수많은 고초를 겪었다. 서울생활 초기 허
름한 단칸방에서 지방 연출가를 출대하
는 거만한 공룡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필
자도 방문해 쓴 소주로 하룻밤을 함께한
기억 또한 빛바랜 사진 같다.

그의 생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처럼 "어
찌 보면 품바는 내 인생의 님두리인 셈이
다"라는 신고(辛苦)의 과정을 거쳐 하층민
들의 서러운 푸념을 대변하는 애교 넘치
는 풍자로 사랑과 선행이 앞서서 품바 역
사관이 자리잡기를 소원했다.

고 김시라 선생 고향에서도 일로품바보
존회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이나 지방에서
도 공연은 상업적으로 난무하지만 진정 그
의 깊은 뜻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
전승되고 있다.

현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신리 888번
지 밤나무골 천사촌 입구에는 대형비문에
품바발상지라 쓰여 있고 천사촌은 야드막
한 야산등덕에 소나무와 잣나무 무성하고
옆에는 배추밭과 주춧돌 한두 채가 있다.
멀리 보이는 앞 논밭은 과거에는 바닷가

였지만 영산강 하구원이 생기면서 들판이
되었는데 현재는 신작로를 내기 위해 도로
공사 가 한창이다.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
형도, 인심도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웬
지 허허로웠다.

회산방죽의 백련지 옆 용산마을, 김시라
선생 생가터 또한 과거의 흔적은 기억의
창고에 저장되고 다만 품바 공연을 통해서
'사랑을 배운 자만이 희망을 가진다' 라는
메시지만 남았다. 가끔 TV에서 1대 품바
정규수 유명배우와 화려한 휴가에 출연했
던 박철민 배우가 출연하면 고 김시라 선
생은 빙긋 자랑스럽게 시정한다. 김선배님
이 저명인사로 성공한 후에는 빛기가 하늘
에 별처럼 어려웠지만 가끔 통화했던 기억
마저도 있고 있었는데 마지막 소식을 접하
고도 문상(問喪)하지 못했다. 일찍 타계한
본명이 김천동(金千童)이었던 시인의 총
각시절, 은은하게 미소 짓던 동안(童顏)이
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왜 일까?

천장근 대장의 삶과 가치관도 비슷한 고
인이 조명한 품바타령!

날개 없는 거지천사가 말로 표현할 수
없는 현실에 대한 한과 울분을 통해 서로
에게 배푸는 연습을 시킨다는 것을...

나의 어린 시절에 증얼거린 한 토막 시
(詩)다.

"가난이야 살림이 중하다 뿐이지? 마음
조차 가난한가."

고 김시라 선생의 안목과 수고로움은 수
많은 배우들을 양성해 생존과 명성을 획득
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렸고, 1980년 광
주민주화운동 직후 심사숙고해서 탈고한
생각의 매듭은 무등산 증심사 사하촌(寺
下村), 화가의 후미진 자취방에서 완결되
어져 세상의 메아리가 되었음을 상기해볼
때 '가난한 살림의 원초적 과정은 결코 부
끄러운 일은 아니다'라고 생각된다.



박종석

- 호남대 미술학과 및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졸업
- 개인전 15회, 단체전 200회
- 제6회 광주미술상 수상, 제2회 서양전문문화대상 수상
- 논문 및 저서 '학포 양평손의 예술과 사적고찰', '부러진 대나무', '세
한을 기약하고', '히말라야14화보집'
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-증-2696호

50년 전통, 대를 잇는
한의원 북경랑

알레르기성 비염, 축농증, 코피 해결
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

한의학박사
박상준 원장
전문 의, 전 동신대학교수

진료시간
평 일 : 오전 9시 ~ 오후 7시
토요일 : 오전 9시 ~ 오후 4시
일요일휴진, 공휴일은 오전진료

진료문의 (062) 227-7575